

성별, 결혼, 연령이 성격 차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코그램을 통한 연구-

성은현

호서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이코그램을 통해 남녀, 기혼과 미혼, 20대와 30대집단 사이에 성격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 하였다. 이를 위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충남 지역의 225명 피험자를 대상으로 J. Dusay가 제작한 이코그램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피험자들 중 남성이 여성보다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자아 상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밖의 자아상태에서는 의미 있는 성차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기혼 집단이 미혼 집단보다 더욱 타인을 배려하고 양육적이며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집단은 기혼 집단보다 더욱 자유롭고 친진스러우며 타인의 말에 순종하는 어린이 자아 상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집단과 미혼 집단을 분리해서 자아상태에서의 성차를 알아본 결과 기혼 집단에서 남성은 기혼 여성보다 더욱 비판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미혼 집단에서 여성은 미혼 남성보다 더욱 양육적이고 자유롭고 친진한 어린이 자아 상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와 30대를 비교해 본 결과 30대가 20대보다 더욱 비판적이고 합리적이며 20대는 30대보다 더 자유롭고 순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제기 및 가설 설정

전통적 사회에서 남성들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책임감, 비판성, 객관성, 합리성을 갖도록 요구 받는다. 그리고 결혼 후 '남자는 그 가정의 주인으로 자신의 가정을 훌륭하게 이끌어 가야 한다'

는 전통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이러한 특성들이 강화된다. 그러므로 결혼은 남자에게 높은 비판적 자아¹⁾와 성인자아 상태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1) J. Dusay는 E. Bern의 교류분석이론에서 제시한 다섯가지 자아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이코그램을 제작하였다. 비판적 어머니 자아(CP), 양육적 어머니 자아(NP), 합리

수 있다. 반면에 여성들은, 예전에 이런 특성을 지녔던 여성일지라도, 결혼 후 '여자는 그 가정을 무리 없이 부드럽고 따듯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라 남편과 가족을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희생하는 모습을 더욱 요구받게 된다. 이러한 환경은 결혼 후 여성들의 자유스럽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아 상태를 낮아지게 하고 말 잘듣는 어린이처럼 순응하는 자아 상태를 높아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로 볼 때) 젊은 여성에게서 결혼 후 순응적인 자아 상태가 높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한국 여성개발원(1992, p.71)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 여성과 후쿠오카현에 살고 있는 일본 여성들의 가정 내 의사결정을 비교해 볼 때 서울의 여성이 후쿠오카 여성보다 더 독립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을 참지 못해 가출한 어머니가 지난해에만 10만 명을 넘었고 이들 대부분이 30대 여성이었다는 기사는(한겨레, 98/10/9) 양육성, 순종성 등의 전통적인 여성성이 젊은 주부들에게는 쇠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도 한다. 이에 함세하여 한국가족관계학회편(1996, p.114)에 의하면 부부간의 권력구조를 정리한 자료(최규련, 1990)를 토대로 부부 연령이 20-30대인 경우 일치형이거나 공동형인 권력유형을 보인다고 하였고, 안병철(1997, p.235)에 의하면 특히 20대와 30대의 젊은 아내들이 자기 주장적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고 하였다. 만약 젊은 주부들이 이렇다면 그들에게서 순응적 자아 상태가 높으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물론 이러한 몇몇 자료만을 토대로 여성에게서 순응적 자아 상태가 약해졌다고 속단할 수는

없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다양한 각도에서 더욱 보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기혼 집단과 미혼 집단, 20대와 30대라는 변인을 중심으로 성격 특성에서의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일부에서는 30대 집단은 기혼 집단과 가깝고 20대 집단은 미혼 집단과 가까운 결과를 보일 것인데 구태여 결혼과 연령의 변인을 따로 나눌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독신주의가 많아지는 현대사회의 특성과, 반대로 20대 초반에 일찍 자녀를 갖고 결혼한 남녀도 있기 때문에 꼭 30대는 결혼 집단과 20대는 미혼 집단과 일치하리라는 기대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을 30대 집단이 20대 집단보다 합리적 어른 자아 상태와 비판적 아버지 자아 상태에서 높을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결혼이라는 변인이 양육적 아버지 자아에 영향력 있다면, 30대 집단에서 아직 결혼을 안한 사람도 있으므로, 30대 집단이 20대 집단보다 더 양육적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반면에 기혼 집단이 미혼 집단보다 더 양육적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서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가설 1. 남녀에 따라 이고그램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기혼 집단과 미혼 집단에서 이고그램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20대와 30대 두 집단간에 이고그램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고찰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 어른 자아(A),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FC),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AC) 상태가 이고그램에서 측정하는 자아 상태이며 각 자아 상태의 힘의 조합을 참고로 그 사람의 성격적 특징을 예측했다. (이고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p.5-6, 측정도구 설명 및 선정 이유 참고)

성격과 성차에 관한 연구

방희정(1996)은 Rozenkrantz et al.(1968)과 Broverman et al(1972)의 남녀의 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표 1과 같이 남녀에 대한 전형적인 성격 특성들을 정리하였다.

표 1. 남녀에 대한 고정 관념적 특성들

여성특성	
거친 언어를 사용하지 않음	말을 많이 함
개치 있음	온순
타인의 감정에 민감함	종교적
애정을 표현함	자기 자신의 걸모습에 관심
갈끔	심을 가짐
안전욕구가 강함	조용함
	예술과 문학을 이해함
남성특성	
공격성	
냉정	독립적
객관적	감정을 숨김
지배적	쉽게 영향을 받음
작은 일에 흥분하지 않음	수학과 과학을 좋아함
경쟁적	활동적
현실적	논리적
직접적	사업에 능숙함
세상을 얕	남자들과 성에 관하여 거
감정이 쉽게 상하지 않음	리낌없이 이야기 함
쉽게 결정함	모험적
지도자로서 활동함	결코 울지 않음
공격적이 되는데 대해 불편	자신감 있음
해 하지 않음	의존하지 않음
생각과 감정을 분리할 수	남성이 여성보다 우수하다
있음	고 생각
걸모습에 자만하지 않음	

방희정(1996, p. 180)

이순형(1995, p.143), 장휘숙(1996, p.12), 그리고 한국 가족학회(1995, p.6)에서도 위 표에 소개된 것과 유사한 남성적, 여성적 특성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Best와 Williams(1993)는 남성이 여성보다 비판적 어버이 자아와 성인 자아 상태에서 높고 여성은 남성보다 양육적 자아와 순응적 자아 상태에서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남녀 평등주의와 양성화를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성을 가

져야 하고 남자이기 때문에 남성성을 가져야 한다는 고정 관념적인 생각에 변화를 일게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녀의 성격 차이는 기질적인 영향력도 있지만 사회화 과정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 의식의 변화는 남녀의 성격 특성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성격 형성이 사회화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많은 자료가 있다. 예를 들어 김정희의 2인(1995)은 여성과 남성이 불안과 공포 반응을 나타내는 데 차이가 있는 것은 사회화 과정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그들에 따르면 9개월 이전의 유아들이 낯선 이에 대한 공포 반응을 보이는 것에는 남녀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학령기에 들어서면서 질문지 형태로 만들어진 일반적 불안척도(General Anxiety Scale:GAS)와 미국의 A. Castaneda (1956) 등에 의해 개발된 아동용 표출성 불안 척도(CMAS)에서는 성차가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 여자의 불안 척도 득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Taylor와 Mas 검사, 모즈레 성격검사 등 다양한 불안 척도를 사용하여 성차를 알아본 결과 성차가 인정되지 않았던 경우는 극히 적고 대부분이 여성의 불안 득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과 공포 표출에서의 성차는 아주 어린 연령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자에게서 불안과 공포를 표출하는 경향이 많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가 여자의 불안이나 공포 표출은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남자가 불안이나 공포를 표출하게 되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양육적인 행동에서의 성차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숙자(1996)는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이 타인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여성은 쉽게 자신의 양육 행동을 드러

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지를 지지하기 위해 논문에 소개된 Berman (1980)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Berman은 남성과 여성에게 아기가 얼마나 예쁜지 혼자 있는 사적 조건과 타인과 함께 있는 공적 조건에서 판단하게 하였다. 그 결과 남성은 타인과 함께 있는 공적 조건에서 보다 혼자 있는 사적 조건에서 아기가 더 예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에 여성은 사적 조건에서 보다 공적 조건에서 더 예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남녀 모두 타인과 함께 있는 공적 조건에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에 대한 고정 관념적 기대, 즉 남성에게는 공적 조건에서 감정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기대되고 여성에게는 이것이 허용되는 기대에 부응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격성에 관해서는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를 통해서 일관되게 남자가 여자보다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accoby, E.E. 와 Jacklin, C.N. (1974), 김정희외 2인(1995), Hyde, J.S.(1986)). 이는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젠이나 테스토스테론이 공격성과 상관이 있다는 생리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질적인 원인에서 설명할 수 있겠으나, 여아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 보다 남아가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사회적으로 묵인되거나 덜 처벌받게 된다는 연구들을 근거로 사회화 과정의 산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성차에 의한 대다수의 성격차는 사회화 과정을 겪으면서 형성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과 성차에 관한 연구

권희완(1992, p.36)은 “결혼은 남녀간의 관계를 기초로 성립되지만, 그것은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닌 지위와 역할 체계이며, 독특한 상호 작용의 특성을 지닌 사회 집단이다.”고 했다. ‘결혼이 두 사람의 지위와 역할 체계’라는 대목에 초점을 맞춰 볼 때 우리는 전통 사회와 현대 사회에서 이 점에 있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신

정숙(1986, p.19, p.55)에 의하면 전통 사회 여성에게 은유와 정숙을 가르치는 말은 각 내훈서의 구석구석에 있고 이러한 은유와 정숙을 실천하려면 전통 사회 여성은 모든 일에서 「참으라」는 것이 지상명령으로 요구되었다고 한다. 또한 부부간의 범절에서 첫째로 마음에 새겨 놓아야 할 바는 승순(承順) 이라고 했다. 그러나 평등주의적 결혼 생활을 지향하고 있는 현대 여성들에게 이러한 요구는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권희완(1992, p.37)은 결혼의 의미의 변천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사회적 맥락 속에서 볼 때 결혼은 과거의 ‘제도적’ 결혼에서, 20세기에 와서 ‘우애적’ 결혼으로 변천해 왔다. 제도적 결혼에서의 결혼은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의무로서 간주되었고, 개인의 행복보다 가족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었다. 현대 서구 사회의 결혼의 이상인 우애적 결혼에서의 목표는 남편과 아내간의 밀접하고 만족스러운 관계이다. 우애적 결혼의 특성은 애정의 주고받기, 남편과 아내의 평등성, 의사결정 내 민주주의, 가장 큰 행복이 가정에서 발견된다는 기대를 포함한다.”

권희완(1992, p.37)

이러한 설명으로부터 젊은 여성들이 지향하는 결혼은 과거의 여성에게 요구하던 순종과 인내, 양육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성과 의사결정에서의 민주주의와 연관지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자료로써 부부 관계의 평등성에 관한 박민자(1992, p.9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박민자는 가족 전체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안 10가지를 결정할 때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가를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① 전적으로 남편, ② 비교적 남편, ③ 부부 공동, ④ 비교적 부인, ⑤ 전적으로 부인의 5개 척도로써 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체 대상의 43.2%가 중요한 집안 일을 결정 할 때에 부부 공동으로 결정하는 부부 공동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인 우위형이 35.0%, 남편 우위형이 15.2%, 각각 배우자와 상의 없이 결정하는 자율형이 6.5%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한국 여성들의 의사결정권이 아시아 주변 국가보다 높다는 다른 연구 결과(한국결립조사연구소, 1987, p.93 ; 한국여성개발원, 1992)들을 참고로 볼 때, 한국의 부부들이 비교적 평등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박민자(1992)는 우리 나라 가족내의 의사 결정에 대한 권한 행사는 여성들이 원해서라기 보다 남편들이 귀찮아서 하기 싫은 일, 중요하지 않은 일, 또는 아내가 하면 더 능률적일 것 같은 일 등을 위임하는 것이고 남편들은 거부권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면 아내들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남편들의 실질적인 힘이 아주 강함을 말해 주는 것으로 다른 연구(한국가족학회편, 1995, p.10-11)에서도 종종 논의되어 온 것이다. 이를 통해 과거보다 가정 내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기는 하였으나 여성이 모든 일을 자기 주장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성들이 가정 내 화합을 우선으로 하여 적절한 상황에서 지혜롭게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도 하고 철회하기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젊은 아내들에게 이고그램을 사용하여 자아상태를 측정한다면 순응적 자아 상태에서 과거 전통 사회의 여성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점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여성이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의견을 주장하는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 상태에서도 결혼을 기점으로 미혼일때보다 점수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방법

피험자

충남에 거주하는 20대와 30대의 남녀 22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피험자를 선정할 때 참고로 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학력이 성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고졸 이상의 학력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②성차에 따르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능한 한 성비의 균형을 고려하였다.

③결혼에 따르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혼과 미혼 비율의 균형을 고려하였다.

④연령에 따르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능한 한 20대와 30대를 비슷한 비율로 표집하였다.

측정도구 설명 및 선정 이유

도구 설명

이고그램이란 J. Dusay가 E. Bern의 교류분석 이론을 계승하여 다섯 가지 자아상태의 관계를 양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제작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고그램은 J. Dusay가 개발한 이고그램을 기초로 우재현 등이 제작한 표준화된 한국형 이고그램이다. 전체 문항은 50문항이며 그 내용은 비판적 어버이 자아 상태(CP), 양육적 어버이 자아 상태(NP), 성인 자아 상태(A), 순응적 어린이 자아 상태(AC), 자유스러운 어린이 자아 상태(FC)에 관해서 10문항씩 배정되어 있다. 우재현(1995)은 각 자아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①비판적 어버이 자아 상태(Critical Parent: CP)

이상, 양심, 비판 등의 가치 판단이나 책임감, 윤리관 등 부친적인 엄격한 부분을 말한다. 창조성을 억제하고 징벌적이고 엄한 면이 많지만 사회질서의 유지능력이나 이상 추구 등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 그러나 CP가 과도하면 교만하고 잘난 체하며 상대를 바보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②양육적 어버이 자아상태 (Nurturing Parent: NP)

공감, 동정, 보호, 수용 등의 아동기 성장을 촉진

하는 모친적인 부분이다. 타인에 대하여 수용적이고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와 같이 잘 들봐주고, 친절하게 말을 걸고 동정적이고 애정적이어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나 NP가 과도하면 친절을 강매하는 것이 되어 상대의 독립심이나 자립심을 억제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③성인 자아 상태(Adult: A)

사실에 입각해서 사물을 판단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현실을 객관시키고, 여러 각도에서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이들을 기초로 과학적인 판단을 내리려한다. A적인 사고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필요한 것이지만 과도하면 정서결핍, 무미건조한 컴퓨터 인간이 될 수도 있다.

④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상태(Free Child: FC)

부모의 영향을 전혀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태어난 자연 그대로의 부분이다. 쾌감을 찾아 즐기며 친진난만하고 따듯하고 명랑함을 주며 자유분방하고 좋고 싫은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너무 FC가 강하면 자기중심적이고 제멋대로여서 주위와 협조성이 모자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⑤순응적인 어린이 자아상태(Adaptive Child: AC)

조심성, 순종 등 아이 나름대로 인생 초기에 익힌 처세술을 말한다. 부모의 기대에 맞도록 항상 주위에 마음을 쓰며 자유로운 감정을 억제하는 착한 아이이다.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소극적이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욕구불만과 열등감에 쌓이게 된다. 그래서 때로 이유없이 토라지거나 폭발적인 공격을 보이거나 현실을 회피하기도 하며 억압된 감정으로 인한 편두통 등의 신체증상이나 우울, 불안, 두려움 등의 정신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위에 소개한 각 자아상태와 관련된 문항들의 제시 순서는 일률적이지 않으며 다섯 가지 자아 상태에 관한 질문들이 무작위로 섞여져 있다. 피험자들은 각 문항에 5등급의 척도에 따라 '언제나 그렇다(5)', '자주 그렇다(4)', '보통이다(3)', '가끔 그렇다

(2)', '좀처럼 없다(1)'로 응답하였다. 예를 들어 양육적인 아버지가 자아 상태를 측정하는 문항인 "남에게 칭찬을 잘하는 편이다"라는 문항에 '언제나 그렇다'면 '5', '좀처럼 없다'면 '1'로 응답하였다.

도구선정 이유

성격을 측정하고자 하는 다른 표준화된 검사들이 많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이고그램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특성 요인에 따라 남녀 차이를 평가하는 방법은 이미 많이 사용된 방법이라 새로운 각도에서 사람의 성격을 분석해 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성론적 접근이 너무 분석적이어서 일상 생활에서 나타나는 개인 성격의 측면을 이해하기에는 제한된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좀더 부연하자면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개인의 성격은 다양한 특성들이 결합한 모습이다. 예를 들어 양육성, 친밀성, 수용성, 다정성 등이 결합하여 따듯한 어머니의 모습을 느끼게 하고, 객관성, 합리성, 도덕성, 공격성 등이 결합하여 엄한 아버지의 모습을 느끼게 한다. 이고그램에서 측정하는 각 자아 상태들(비판적 아버지, 양육적 아버지, 어른, 자유로운 어린이,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 상태)은 이렇게 여러 특성들이 복합된 모습을 갖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고그램 결과는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 처리 방법

피험자들의 응답을 비판적 아버지 자아 상태, 양육적 아버지 자아 상태, 성인 자아 상태, 순응적 어린이 자아 상태,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 상태로 분류하여 각각의 자아 상태에 대한 점수를 계산한다. 각각의 자아 상태에 대한 점수와 피험자의 성별, 연령, 결혼 여부 등을 SPSS프로그램을 통해 coding한다. 먼저 이고그램에 대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서 각

자아 상태간에 상관 정도를 Pearson 상관 계수를 통해 알아본다. 그리고 요인 분석을 통해 다섯 가지 자아 상태를 대표하는 요인들을 알아본다. 다음으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성별, 연령, 결혼 여부에 따라 다섯 가지 자아 상태에서 차이가 있는지 t-검증을 통해 알아본다.

결 과

이코 그래프에 대한 통계적 기초 자료

: 상관관계, 요인분석

각 자아 상태간의 상관 관계와 요인 분석을 통해 이코그래프가 측정하고 있는 자아 상태간의 관계와 대표적인 자아상태 요인에 관해 알아보았다.

먼저 상관 분석 결과 나타난 각 자아 상태간의 상관 관계는 표 2와 같다.

표 2. 각 자아 상태의 상관 계수

	CP	NP	A	FC	AC
CP	1.00				
NP	.142*	1.00			
A	.501**	.342**	1.00		
FC	.371**	.208**	.315**	1.00	
AC	-.042	.281**	-.069	.072	1.00

* p=.05 수준, ** p=.01 수준에서 의미 있음 (2-tailed)

표 2에서 보듯이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 상태를 제외하고 각 자아 상태들은 서로 간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 상태는 양육적 아버지 자아 상태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밖의 다른 어떤 자아 상태와도 의미 있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타인의 말에 거역하지 못하고 자신을 억압하는 사람은 남을 배려할 수는 있지만, 남에게 비판적이지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도,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지도 않을 것이기에 수궁이가

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섯 가지 자아 상태가 어떠한 요인으로 표출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요인 분석을 해보았다. 그 결과 두 개의 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 요인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측면이고 다른 요인은 타인 배려를 우선으로 하는 측면이었다. 이 두 요인의 전체 자아상태에 대한 설명력은 첫 번째 요인이 39.4%, 두 번째 요인이 24.3%로 모두 63.7%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검증

가설 1에 관한 결과

남녀에 따라 이코그래프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알아본 결과 표 3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3. 남녀에 따른 이코그래프 결과

	성별	인원	평균	표준편차	t	p
CP	남자	104	29.51	5.18	2.44*	.015
	여자	121	27.88	4.80		
NP	남자	104	33.99	5.55	1.49	.137
	여자	121	35.08	5.41		
A	남자	104	32.30	5.98	1.98*	.049
	여자	121	30.82	5.26		
FC	남자	104	29.04	5.74	1.39	.165
	여자	121	30.12	5.82		
AC	남자	104	28.43	5.54	.54	.587
	여자	121	28.84	5.73		

* p<.05

이 표를 통해 남자가 여자보다 비판적 아버지 자아 상태(CP)와 어른 자아 상태(A)에서 의미 있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p<.05). 그리고 양육적 아버지 자아 상태(NP)와 순응적 어린이 자아 상태(AC),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 상태(FC)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평균에서 높았으나 이는 의미 없는 차이로 나타났다(p>.1).

남자들이 여자들 보다 비판적이고 합리적이라

거나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에서는 성차가 없다는 결과는 Best와 Williams(1993)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에 양육적, 순응적 어머니 자아 상태에서 여자가 약간 높았으나 의미 없는 차이라는 결과는 여자들이 남자들 보다 양육적이고 순응적인 자아 상태가 높다고 한 Best와 Williams(1993)의 선행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남녀 차이가 미혼과 기혼 집단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미혼 집단과 기혼 집단 각각 내부에서의 남녀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4와 표 5와 같다.

표 4. 미혼 집단에서의 남녀 차이

	성별	인원	평균	표준편차	t	p
CP	남자	47	28.87	4.65	1.59	.116
	여자	68	27.38	5.37		
NP	남자	47	32.72	5.37	1.88*	.062
	여자	68	34.69	5.70		
A	남자	47	31.02	5.37	.63	.529
	여자	68	30.37	5.58		
FC	남자	47	29.47	4.60	2.37**	.019
	여자	68	31.81	5.98		
AC	남자	47	30.09	4.83	.05	.960
	여자	68	30.13	5.17		

* p=.062, ** p=.019

표 5. 기혼 집단에서의 남녀 차이

	성별	인원	평균	표준편차	t	p
CP	남자	50	30.80	5.23	2.51**	.014
	여자	53	28.53	3.91		
NP	남자	50	34.80	5.77	.738	.462
	여자	53	35.58	5.02		
A	남자	50	34.08	6.19	2.47**	.015
	여자	53	31.40	4.80		
FC	남자	50	28.96	6.72	.885	.378
	여자	53	27.94	4.85		
AC	남자	50	26.72	5.72	.404	.687
	여자	53	27.19	6.02		

** p≤.015

표 4에서 보면 미혼 집단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양육적 어머니 자아 상태(NP)와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 상태(FC)에서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5). 그런데 표 5에서 보면 기혼 집

단에서는 양육적 어머니 자아 상태와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 상태에서 남녀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결혼을 통해 남자의 양육적 부모자아 상태는 여성보다 현저히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결혼 후 남녀 모두에게서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 상태는 떨어졌는데 그중 여성의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 상태가 현저히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녀 모두 미혼 집단에서보다는 기혼 집단에서 비판적 어머니 자아 상태와 합리적 성인 자아 상태가 높았다. 그러나 특히 남성의 비판적 어머니 자아 상태와 합리적 성인 자아 상태는 여성에게서 보다 결혼을 통해서 의미 있게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p≤.015). 순응적 어린이 자아 상태(AC)에 대해서는 미혼 집단의 남녀가 기혼 집단의 남녀보다 높았으나 각 집단 내부에서 의미있는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남녀 모두 결혼을 통해서 순응적 자아 상태가 의미있는 차이로 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²⁾.

가설 2에 관한 결과

기혼 집단은 미혼 집단과 이고그램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는 표 6,7,8을 통해서 검증되었다.

표 6. 기혼,미혼에 따른 이고그램의 결과

	결혼여부	인원	평균	표준편차	t	p
CP	미혼	115	27.99	5.12	2.45**	.015
	기혼	103	29.63	4.71		
NP	미혼	115	33.89	5.63	1.76*	.080
	기혼	103	35.20	5.38		
A	미혼	115	30.63	5.48	2.74**	.007
	기혼	103	32.70	5.65		
FC	미혼	115	30.85	5.56	3.13**	.002
	기혼	103	28.44	5.82		
AC	미혼	115	30.11	5.01	4.28**	.000
	기혼	103	26.96	5.85		

** p<.02, * p=.08

2) 자아상태에서 기혼과 미혼집단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가설2를 검증하면서 다시 다루어질 것임.

표 6은 기혼 집단과 미혼 집단 사이에 비판적 아버지 자아 상태(CP), 양육적 아버지 자아 상태(NP), 성인 자아 상태(A), 자유스러운 어린이 자아 상태(FC), 순응적 어린이 자아 상태(AC)에서 모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혼이 미혼보다 비판적 아버지 자아 상태와 성인 자아 상태에서 높았고 양육적 아버지 자아 상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혼은 기혼보다 순응적 어린이 자아 상태와 자유스러운 어린이 자아 상태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과 미혼 집단 차이를 여성의 경우와 남성의 경우에서 살펴보면 표 7, 8과 같았다.

표 7. 여성에게 있어서의 기혼집단과 미혼 집단의 차이

	결혼여부	인원	평균	표준편차	t	p
CP	미혼	68	27.38	5.37	1.31	.19
	기혼	53	28.53	3.91		
NP	미혼	68	34.69	5.69	.90	.37
	기혼	53	35.58	5.02		
A	미혼	68	30.37	5.58	1.07	.29
	기혼	53	31.40	4.80		
FC	미혼	68	31.81	5.98	3.83**	.000
	기혼	53	27.94	4.85		
AC	미혼	68	30.13	5.17	2.89**	.005
	기혼	53	27.19	6.02		

** p≤.005

표 8. 남성에게 있어서의 기혼집단과 미혼 집단의 차이

	결혼여부	인원	평균	표준편차	t	p
CP	미혼	47	28.87	4.65	1.92*	.06
	기혼	50	30.80	5.23		
NP	미혼	47	32.72	5.37	1.83*	.07
	기혼	50	34.80	5.77		
A	미혼	47	31.02	5.37	2.60**	.01
	기혼	50	34.08	6.19		
FC	미혼	47	29.47	4.60	.43	.67
	기혼	50	28.96	6.72		
AC	미혼	47	30.09	4.83	3.12**	.002
	기혼	50	26.72	5.72		

** p≤.01, * p≤.07

표 7은 여성에게서 기혼 집단과 미혼 집단의 의미 있는 차이가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 상태(FC)와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 상태(AC)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미혼 여성이 기혼 여성보다 더욱 순응적이면서도 자유분방하고 천진스럽게 자기 개성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비판적 아버지 자아(CP), 양육적 아버지 자아(NP), 합리적 성인 자아 상태(A)에서는 기혼 여성들이 미혼 여성보다 약간 높았으나 그 차이는 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8은 남성에게 기혼집단과 미혼 집단 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기혼 집단은 미혼 집단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어른자아 상태(A)가 매우 높고(p≤.01), 비판적 아버지(CP)와 양육적 아버지 자아 상태(NP)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7). 그리고 미혼 집단의 남성이 기혼 집단의 남성보다 순응적 어린이 자아 상태(AC)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2).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 상태(FC)는 미혼이 기혼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의미 없는 차이였다.

가설 3에 관한 결과

20대와 30대 두 집단간에 이고그램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표 9,10,11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표 9. 이고그램으로 본 20대와 30대 집단간의 차이

	연령	인원	평균	표준편차	t	p
CP	20대	131	27.86	5.14	2.66*	.008
	30대	92	29.66	4.74		
NP	20대	131	34.05	5.85	1.62	.108
	30대	92	35.25	4.91		
A	20대	131	30.55	5.53	2.86**	.005
	30대	92	32.70	5.47		
FC	20대	131	30.66	5.93	3.12**	.002
	30대	92	28.24	5.32		
AC	20대	131	29.86	5.18	3.81**	.000
	30대	92	27.03	5.81		

** p≤.005, * p=.008

표 9에서는 비판적 어버이 자아 상태(CP)와 합리적 성인 자아 상태(A)에서 30대가 20대보다 높고,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FC)와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 상태(AC)에서 20대가 30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적 어버이 자아 상태(NP)는 30대 집단이 20대 집단 보다 약간 높았으나 그 차이는 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 각 집단 내에서 20대와 30대에 따르는 이고그램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10과 표 11과 같다.

표 10. 여성 집단에서 연령에 따른 이고그램의 차이

	연령	인원	평균	표준편차	t	p
CP	20대	71	27.59	5.31	.80	.43
	30대	50	28.30	3.97		
NP	20대	71	34.62	5.93	1.12	.26
	30대	50	35.74	4.54		
A	20대	71	30.31	5.49	1.27	.21
	30대	50	31.54	4.86		
FC	20대	71	31.66	5.93	3.66**	.00
	30대	50	27.92	4.92		
AC	20대	71	29.99	5.28	2.68**	.01
	30대	50	27.22	5.99		

** p≤.01

표 10은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FC), 순응적인 어린이 자아 상태(AC)에서 20대 여성이 30대 여성보다 의미 있게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외에 비판적 어버이 자아(CP), 양육적 어버이 자아(NP), 합리적 성인 자아 상태(A)에서 30대 여성이 20대 여성보다 약간 높았으나 그 차이는 의미 없는 것이었다.

표 11. 남성 집단에서 연령에 따른 이고그램의 차이

	연령	인원	평균	표준편차	t	p
CP	20대	60	28.18	4.95	3.08**	.003
	30대	42	31.29	5.11		
NP	20대	60	33.37	5.73	1.16	.25
	30대	42	34.67	5.32		
A	20대	60	30.83	5.61	2.81**	.006
	30대	42	34.07	5.88		
FC	20대	60	29.47	5.76	.73	.47
	30대	42	28.62	5.80		
AC	20대	60	29.70	5.11	2.70**	.008
	30대	42	26.81	5.64		

** p≤.008

표 11을 통해서 30대 남성이 20대 남성보다 비판적 어버이 자아(CP), 합리적 성인 자아 상태(A)에서 의미 있게 높으며, 20대 남성이 30대 남성보다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 상태(AC)에서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적 어버이 자아 상태(NP)는 30대가,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 상태(FC)는 20대가 약간 높았지만 이 차이는 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지금까지 이고그램을 통해 나타난 성별, 결혼 집단과 미혼 집단, 20대와 30대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Best와 Williams(1993)에 의하면, 남성은 여성보다 비판적 어버이 자아 상태와 합리적 어버이 자아 상태에서 우세하고, 여성은 남성보다 양육적 어버이 자아 상태와 순응적 어린이 자아 상태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본 연구 결과 비판적 어버이 자아와 성인 자아 상태에서 전체 피험자중 남성이 여성보다 의미 있게 높았다는 것은 그들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기혼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미혼 집단의 남성들은 미혼 여성과 비교하여 비판적 어버이 자아와 합

리적 어른 자아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결혼 후 남성의 비판적 아버지 자아상태와 합리적 어른 자아 상태는 부적 상승하여 기존 남성과 기존 여성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게 하였다.(표 4, 표 5 참고).

양육적 아버지 자아 상태에서는 전체 피험자를 대상으로 할 때 Best와 Williams(1993)가 보고한 것처럼 여성이 남성보다 양육적이라는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결혼 집단과 미혼 집단을 나누어 분석해 보니 미혼 집단의 여성이 미혼 남성보다 양육적 아버지 자아가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결혼 집단에서는 여전히 성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남성들의 양육적 아버지 자아상태 점수가 결혼 후 많이 올라갔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생각은 가설 2와 가설 3을 검증하면서 확인되었다. 즉 남성에게서 기존 집단과 미혼 집단 사이에 양육적 아버지 자아 상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지만 30대와 20대라는 연령 변인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8과 표 11 참고). 이는 결국 (연령이 증가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결혼이 남성의 양육적 아버지 자아 상태를 증가시킨다는 생각을 지지해주는 자료라 할 수 있겠다.

순응적 어린이 자아 상태에 관해서는 성별 차이 보다는 결혼 변인과 연령 변인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본 연구 결과 표 3에서 부터 표 11까지 제시한 자료는 이러한 생각을 지지해 준다. 다시 말하면 남녀 모두에게서 미혼 집단이 기존 집단보다 그리고 20대가 30대보다 순응적 어린이 자아 상태에서 강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이 남성보다(또는 남성이 여성보다) 순응적 자아 상태가 의미 있게 높다는 결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을 떠나서 남녀 모두 결혼을 하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타인의 말에 무조건 따르기 보다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이는 (여성의 경우에 한해서) 우리의 동양 전통 사상과는

모순되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앞서 선행 연구에서도 보았지만 남성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끌어 가야하므로 자기 주장적 특성이 계속 강화되지만 여성이 결혼하면 남편과 자식의 뜻에 따르고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20, 30대 여성들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미혼일 때 보다 기혼일 때 덜 순응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예측했듯이³⁾ 지난 수년동안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였고 핵가족화로 인해 가정 내 크고 작은 문제에서 여성의 의사결정권이 높아지고 있다는 가정 문화의 변천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납득이 간다.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 상태에 대해서는 미혼 집단의 여성이 미혼 남성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표 4 참고).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여성의 자유스러운 어린이 자아 상태는 큰 폭으로 떨어진 반면 남성의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 상태는 결혼을 전후로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표 4,5,7,8 참고). 이러한 결과는 연령 변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연령의 증가는 여성의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 상태를 약화시키는 반면, 남성의 자유로운 자아 상태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표 10, 11 참고).

여기서 보여준 결과로부터 여성은 20대에서 30대로 되면서 또는 결혼을 하면서 자기 개성대로 표현하고, 천진스럽고, 명랑하고, 자유분방하고, 유쾌한 일을 찾아 즐기는 자아 상태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곧 모든 일에 지나치게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타인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는 순응적인 모습과 이어지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기존 여성의 순응적 자아 상태 점수가 기존 남성의 점수에 비해 의미있게 낮지 않았다는 표 5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기존 여성이 기존 남성보다 더 순응적이라고 할 수 없음을 이

3) p.4-5 참고

미 알고 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기혼 여성들은 가족이나 사회 속에서 맞춰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자유분방한 면을 적절히 제한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자신의 주장을 펴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이 분야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아직 많지 않아 자료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 체계를 제시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어 본 연구의 부족한 점이 보완되어 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고문헌

권희완(1992). 부부관계의 인식에 관한 연구, 여성한국사회연구편. 한국 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김정휘, 김병선, 김정인(1995). 여성은 남자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서울: 서원.

박민자(1992). 부부관계의 평등성, 여성한국사회연구편. 한국 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방희정(1996). 성고정 관념: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실제, 김태련의 5인. 여성심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신정숙(1986). 전통사회의 여성생활. 대광문화사.

안병철(1997). 사회변동과 가족. 미래인력연구센터.

우재현(1995). 이고그램 243 패턴. 정암서원.

장휘숙(1996). 여성 심리학-여성과 성차. 서울 박영사

조숙자(1996). 사회 행동의 발달과 성차, 김태련의 5인. 여성심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여성한국사회연구편(1992). 한국 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이순형(1995). 여성의 심리(하). 양서원.

임정빈, 정혜정(1997). 성역할과 여성. 서울:학지사.

한국가족관계학회편(1995). 한국 가족문제-진단과

전망. 도서출판: 하우.

한국가족관계학회편(1996). 한국가족의 현재와 미래. 도서출판: 하우.

한국여성개발원(1992). 가족 의식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한국 갤럽 조사 연구소(1987). 한국 주부의 생활과 의식 구조.

Berman, P. W. (1980). Are Women more responsive than men to the young? A review of developmental and situational variables. *Psychological Bulletin*, 88, 668-95.

Best, D. L. & Williams, J. E. (1993). A cross-cultural viewpoint. In A.E.Beall & R. J. Sternberg(Eds.). *The Psychology of gender*. NY: Guilford Press.

Hyde, J. S. (1986). Gender differences in aggression. In Hyde & Linn(Eds). *The psychology of gender: Advances Through Meta-analysis*. John Hopkins Univ. Press, pp .51-66.

Maccoby, E. E. & Jacklin, C. N.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CA: Stanford

What Influences do Sex, Marriage, or age Have on the Personality Difference?: an Egogram Approach

Eun-Hyun Sung

Hoseo University, Department of Child Study

Is there any personality difference based on sex, marriage, or age? This study tried to answer that question by conducting a survey measuring egogram developed by J. Dusay. This study included 225 subjects living in Chungcheongnam-Do.

Principal results are as follows: male appeared more critical and reasonable than female; the married group was more reasonable, nurturing, and critical than the non-married one, while the non-married group showed a freer, and more adaptive attitude than the married one; in the married group, male was more critical and reasonable than female, whereas in the non-married group female was freer and more nurturing than male; the thirties appeared more reasonable and critical than the twenties, while the twenties were freer and more adaptive than the thirties.